

여성, 안전을 질문하다

나를 지키는 글쓰기- 위대한 고쳐쓰기

꽃별 김 화 속





제2026-0715호

당연함을 깨뜨리는 질문자 상

(부제: 이 시대의 참 스승상)

성명: 강남순 작가님

세상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지만 위
가는 '질문 빈곤 사회'를 통해 그 익숙함 속에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독자들
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광범한 일
상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세상을 바라
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강남순 작가님의 글은 정답을 알려 주기보다 더 좋은 질문을 남겨주었습니
다. 그 질문은 독자들의 마음에 오래 머물며 사회와 사람,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생각을 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
상하게 만드는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연함 속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전주 동화 출판

전주신흥고 함께해봄 교실 교사 모임

전주신흥고 호모쿠파스 사제동행 독서 모임

전북교육청 소속 다다르다 인문 독서 동아리 교사 모임



FESTIVAL OF CANNES
JUNE 19-26, 2025

특별회 간영회제 심사위원 특별포

반드시 목격해야 할 영화



2025.06.03

THE SEED OF THE SACRED FIG

A FILM BY MOHAMMAD RASOULOF

심성한 나무의 씨앗



Produced by

MIRAGE

Partner

KCJH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A BLISTERING, PROPULSIVE THRILLER"

THE NEW YORKER



FIPRESCI AWARD
FESTIVAL DE CANNES

THE SEED OF THE SACRED FIG

WRITTEN AND DIRECTED BY
MOHAMMAD RASOULOF

NEON



하인리히의 1:29:300 삼각형과 이후 제시된 버드의 1:10:30:600 삼각형



ABUSE
IS NOT
LOVE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N° 1 무시
N° 2 협박
N° 3 모욕
N° 4 조종
N° 5 질투
N° 6 통제
N° 7 침해
N° 8 고립
N° 9 위협

파트너 폭력에는
9가지 주요 징후가 있습니다

♣ 젠더교육플랫폼호재
Gender Equality Training Platform

1. 무시
2. 협박
3. 모욕
4. 조종
5. 질투
6. 통제
7. 침해
8. 고립
9. 위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1366으로 연락주세요

032-1366

24시간 상담 · 365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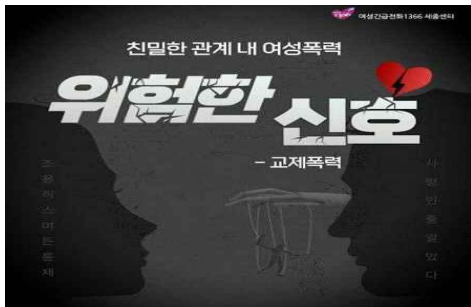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는
피해자 곁에 24시간 함께합니다

 www.incheon1366.or.kr

  /incheon1366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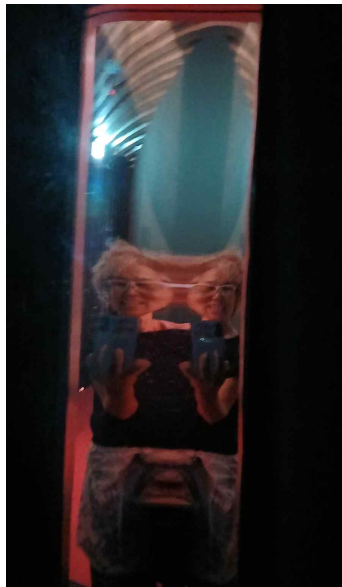


안전 사고를 줄이는 핵심 요소

첫째, 위험의 인지

둘째, 정보 전달

셋째, 행동 변화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김화숙 지음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예수 복음
아닌가요?”



서남미디어

나는 왜 쓰고 싶지?

내게 말할 기회를 주고

나와 화해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



진실로 어떤 여성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다!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여성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발전보다 남을 즐겁게 하는 데 힘쓰라고 한다.

여성이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치일까?》

(벨 폭스, 현실문화, 2015)

여자들은 생애 대부분을 가부장적 길잡이들이 이미 지정해 놓은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했다. 여자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실망스럽더라도 비판하거나 도전하는 대신 지배 구조 안에서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했다. 페미니즘 운동과 그 이후의 많은 진통 끝에 여자들은 이제 '사랑'과 '지배'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힘껏 동의한다. 둘 중 한쪽이 존재한다면, 나머지 한쪽은 부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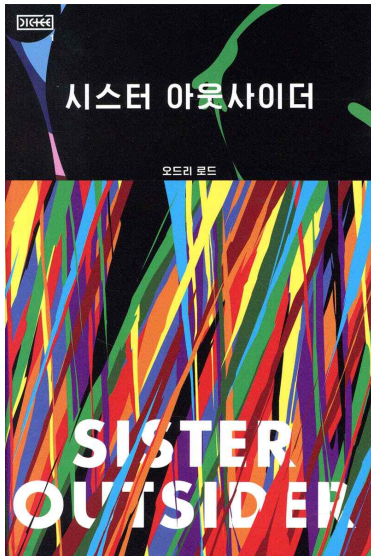


《사랑은 사치일까?》

(벨 폭스, 현실문화, 2015)

결코 나를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여성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서 사랑의 탐색은 시작되어야 한다. 이 여정은 친밀감과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사고와 믿음을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성이 천성적으로 사랑에 적합한 존재라는 편견 대신 사랑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성과 개인적 성장, 정서적으로 열린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p.140)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앞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에 앞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 사회를 떠받치는 심리적 구조로서의 **흑인 여성 혐오**는
흑인 여성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기혐오**로 자리 잡는다.

흑인 여성의 자기혐오는

흑인 여성들끼리의 다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을 키우지만
이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

이 갈망의 뿌리는 자기혐오이기 때문이다.

뱃속까지 *Writing* 내려가서 *Down the* 써라 *Bones*

나만의 글쓰고 지을 1만천속 글쓰기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혁명적인 글쓰기 방법론

인문회



마음은 불확실하고, 사고는 연약하기만 하고, 감각은
무디고 둔하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조절력을 잃어버린 글쓰기, 결과물이
어디에서 나올지 확실치 않은 글쓰기는 무지와 암흑
속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과 정면으로 부딪칠 때,**
이러한 무지와 암흑의 장소에서 출발한 글쓰기가
결국에는 우리를 깨우쳐 주며,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만든다.

글쓰기 훈련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몸과 육체를 믿는 법,

다시 말해

인내심과 공격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바깥에서는

어떤 배움의 길도 없다."

"글을 쓰고 싶다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 한다.
조롱거리가 되는 위험을,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서민 웨스트

우리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어감 사전

말의 속뜻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

안상순 지음



언어의 의미란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도 끝내 궁극을 드러내지 않는 불가지의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말과 글을 찾아다니며 풀이를 붙이는 일을 했지만 비슷한 말의 속뜻을 변별하고 정리해서 기록하는 이 작업은 격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고요. 작업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눈 밝은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따가운 질정을...

고쳐쓰기, 퇴고(밀 퇴推 두드리л 고敲)

"백지는 고쳐 쓸 수 없다."

밀다(推): 세상을 향해 쏘아내고 밀어붙임.

두드리다(敲):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여백과 울림.

“위대한 글쓰기란 없다.

위대한 고쳐쓰기가 있을 뿐이다.”

"글쓰기는

최고의 자기돌봄이고

자기애의 실천이며

자기해방이다."

초고(初稿)

모든 초고는 기꺼이 쓰레기다
완벽이라는 해묵은 족쇄를 풀고
텅 빈 백지의 영토 위에
거친 첫 줄을, 그냥 질러라

쓰이지 않은 문장은 고칠 수 없나니
정돈된 침묵 속에서 주저하지 마라
첫 문장의 부끄러움을 견딘 자만이
비로소 다음 페이지의 주인이 된다

일단 쏟아내라, 거친 소음처럼
막 쓴 낙서가 다음 줄을 불러내나니
멈추지 않고 써 나가는 야성만이
진흙 묻은 손끝으로 보석을 만진다

깎고 다듬기는 그 다음의 일
위대한 조각은 끝내 완성되리니
기억하라, 눈부신 명작은 언제나
그 어설픈 첫 줄이 버텨낸 시간이다

초고-합평- 수정고- 퇴고, 고쳐쓰기의 힘

1	주제와 메시지	주제, 목소리/작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2	전체 구조와 흐름	도입-전개-마무리/가독성/자연스러운 흐름인가?
3	제목 첫문장 내용	상응/임팩트/재배치/삭제/보충/완결된 글인가?
4	개성과 창조성	개성/리듬/설명조/일반화/재미/느낌/인상에 남는가?
5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	비문/문장/군더더기/문장단락길이/맞춤법/교정 교열
6	독자의 목소리	인상적인/강점/가능성/모호함/질문/보충 제안

고쳐쓰기 전후 글 비교

[형식] 편지 형식의 초고에서- 일반 에세이 형식으로 변경

[분량] 브런치북 포스팅 한글 3.5쪽 - 2.5쪽으로 줄임

[도입부] 넷플릭스 드라마 인용 - 삭제 후 새롭게 씀

[첫문장] 드라마 대사 - 책 흐름에 맞는 시공간 첫문장

[제목] 미안해요 사마리아 왕언니! - 사마리아 왕언니

[수정기간] 포스팅 2월- 송고 3월 - 수정 4월- 퇴고 6월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김화숙 지음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예수 복음
아닌가요?"



www.kyobobook.co.kr

에세이

숙덕숙덕 사 모가 미쳤다

총 30화 152분



14

이런분께 추천드려요!

- 친밀한 관계에 지속가능성을 질문하는 그대
- 금기와 두려움을 뚫고 용감하게 살고 싶은 그대
- 가슴에 기독교/종교에 대해 할 말 있는 그대

브런치북 소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가슴이 말하
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을 것이다."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
았더라면'은 몇 줄만, 아니 제목만 읽어도 가슴에 파
도가 이는 건 예일까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
늘 이려진 않을 텐데, 이런 회한 없는 사람도 있나
요? 그 기억을 잊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서
저는 글을 씁니다.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덜 고
민하며 살아내고 싶어서죠. 제 브런치북 <8월 간염
간염 자연치유 일기>와 책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의 프리퀄 좀 되겠구나, 벌써 감 잡았다고라고고라?
라?

가독교

결론

페미니즘

01 《숙덕숙덕 사모가 미쳤다》 연재 브런치북을 시작하며

글쓰기전도는 많이 못나가고 기제 정하고 목차 짜는데 거물을 다 보냈다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을 것...

3분 · 댓글 8



02 사모님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마시라

나이마흔, 코를 박고 충성한 조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 경상도 우리 고향 사투리로 '일본



<원고 제출 시 참고 기준>

1. 글 한 쪽지 A4 1.5~ 2매. 10포인트, 줄간격 160%. 제목/이름 후 한줄 띄움
2. 책 제목 인용은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영화나 신문은 <신성한 나무의 씨앗>, <여성신문>, 꺾쇠 모양 통일하기.
3. 인용한 문장이나 대화문은 "쌍따옴표", 강조나 속 생각이면 '작은 따옴표'.
4. 단락 사이 띄우기/안 띄우기 자유.
5. 책 묶을 때 출판틀이 있으니 원고 내용만 신경쓰면 됨.

<한 사람당 2편까지, 형식 자유 선택>

1. 모방시/창작시(A4 1~2쪽)
2. 자전적 에세이(A4 1.5~2쪽)
3. 칼럼/주장/서평(A4 1.5~2쪽)
4. 엽편/단편 소설(A4 1~4쪽)

**원하는 형식 선택, 2쪽지까지. 4쪽짜리는 1쪽지 제출. 밴드 올라온 순서대로 합평, 수정, 퇴고 과정 계속 합평 가능. 작가가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 합평 후 퇴고, 책으로 묶음. 10월에 공개 북토크로 사업 마무리.

블랙 유니콘The Black Unicorn/ 오드리 로드

블랙 유니콘은 탐욕스럽다.

블랙 유니콘은 성마르다.

블랙 유니콘은 오인되었다

그림자로

또는 상징으로

차디찬 땅을 헤치며

끌려다녔다.

내 분노를 향한 조롱이

안개처럼 흩뿌려진 곳을,

유니콘의 뿔이 놓이는 건 그녀의 무릎

위가 아니라

커져가는

달 구덩이 깊숙한 곳이다.

블랙 유니콘은 가만있지 못한다

블랙 유니콘은 수그릴 줄 모른다

블랙 유니콘은 자유롭지

않다.

'함께 쓰기'라는 예술. 합평

1.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2. 글의 구성과 흐름이 잘 어우러진 '숲'인가?
3. 제목이 글의 내용과 상응하며 매력적인가?
4. 문장, 첫 문장, 비문, 표현은 어떤 '나무'인가?
5. 띄어쓰기, 맞춤법, 단어에 교정 교열이 필요한가?
6. 숲과 나무를 함께－식제/요약－재배치－추가－교정 교열

자, 위풍당당(威風堂堂) 쓰는 거야!!



꿀벌 김화숙

휴대폰 : 010-3918-9217

이메일 : dream40k@hanmail.net

브런치 : <http://brunch.co.kr/@dream40k>

블로그 : <http://blog.naver.com/kkulbol>



